

왜 티에르리우(Tiers-Lieux)인가?

프랑스의 지역 격차·서비스 재편·전환기 경제 속에서 부상한 지속가능한 지역 인프라

현황

2026년 현재 프랑스 티에르 리우(Tiers-lieux)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23년 기준 프랑스에는 3,500개 이상의 티에르 리우가 운영 중이며, 그 중 62%가 대도시밖 메트로폴에, 34%는 농촌 지역에, 28%는 중소도시에 위치한다. 티에르 리우 모델이 비수도권 지역의 생활·학습·생산 인프라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공식 정의에 따르면, 티에르 리우는 단순한 카페형 '서드 플레이스(third place)'가 아니다. 공간과 역량의 공유, 복합적 활동, 시민 집단의 협업을 통해 지역 과제에 대응하는 협업 거점으로 정의된다.

국토균형발전청(Agence nationale de la Cohésion des Territoires : ANCT)은 2020년부터 티에르 리우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직접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2020년 이후 국가가 지원한 티에르 리우는 700개 정도 되며, 세부적으로는 일반 거점형 407개(Fabriques de territoire), 제조·생산 중심형 100개(Manufactures de proximité), 학습·직업훈련 중심형 204개(DEFFINOV)로 구성된다.

2000년대 프랑스 정부의 티에르 리우 채택 배경

프랑스가 티에르 리우를 도시와 농촌·소도시 간 격차 해소의 수단으로 채택한 데에는 2000년대 초반 본격화된 구조에 대한 문제가 큰 몫을 차지한다.

당시 프랑스는 파리, 리옹, 보르도 등 소수 대도시로 부와 일자리가 집중되는 반면, 중소도시·농촌·교외 외곽 지역은 인구와 자본이 대도시로 유출되는 문제를 겪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지역민들은 점점 더 박탈감과 고립감과 박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지리학자 크리스토프 길뤼(Christophe Guilluy)가 이런 상황을 가리켜 '주변부 프랑스(La France Périphérique)' 현상이라고 불렀다.

주변부 프랑스 현상에 따른 대도시 이외 지역의 인구 감소는 공공서비스 축소로 이어졌다. 국가 예산 삭감과 수익성 악화로 지방 우체국, 기차역, 병원, 학교가 연이어 통·폐합되었고, 그 결과 지역민이 일상적으로 모이고 교류하던 동네 카페(Bistrot), 빵집, 노동조합 사무실 같은 공간도 사라졌다. 지역 공동체를 지탱하는 물리적 구심점의 부재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되게 된다.

같은 시기, 제조업·철강·방직·광산 등 프랑스 북부와 동부를 지탱하던 전통 산업이 해외로 이전하거나 폐업하면서 대규모 실직과 산업 시설 공동화(空洞化)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중소도시는 실직자 재교육과 유희 산업 시설 활용이라는 이중의 과제를 가지게 된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마지막으로 행정 서비스, 금융 업무, 구직 활동이 온라인으로 빠르게 전환되었음에도 농촌 지역의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는 미비한 상태였다. 그래서 노년층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디지털 접근성 부재에 따른 행정 처리 어려움 역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하게 된다.

프랑스가 티에르 리우에 부여한 구체적 역할

프랑스에서 티에르 리우는 추상적인 공동체 공간이 아니라 복수의 공공 과제를 실질적으로 분담하는 복합 거점이다.

일과 경제활동 측면에서 보자면, 2023년 기준 총 3500 여개의 전체 티에르 리우자체가 30,409 명을 직접 고용을 했으며, 47,858개 업체(사업자, 협회, 예술가, 소기업, 장인 등)가 티에르 리우에 입주해 있다. 또한 55%의 티에르 리우가 코워킹 공간을 운영하며, 18%는 인큐베이터·엑셀러레이터 기능을 수행한다. 즉, 티에르 리우는 단순한 무료 커뮤니티 공간을 넘어 일하고, 배우고, 실험하고, 연결하는 지역 경제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

교육 및 직업 재교육 기능도 두드러진다. 58%의 티에르 리우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377,159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49%는 직업훈련, 35%는 취업연계에 관여한다. 티에르 리우가 제공하는 교육의 범위는 디지털·창업·제조·정보기술·문화·행정·자원재활용 등 다양하다. 티에르 리우는 문화 향유 공간을 넘어 학습 분산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디지털 교육 및 생활 서비스 보완 기능도 주목할 만하다. 31%의 티에르 리우가 기초 디지털 활용 및 시민교육형 워크숍을 제공하며, 16%에는 공공기관이 입주, 연계하는 방식으로 행정 서비스에 도움을 준다.

문화와 창작 분야에서 보자면 51%가 문화 활동을 운영하고, 32%가 예술 창작 스튜디오를 갖추고 있으며, 31%는 스스로를 문화 티에르 리우 또는 독립 복합형 공간으로 정의한다. 2023년 기준 총 3,500 여개의 티에르 리우 기준 환산치로 1,300만 명이 문화·예술 행사에 참여했고, 135,000개의 개방형 축제가 개최됐다.

환경 실천 측면에서는 46%가 재사용·환경 관련 활동에 참여하고, 30%는 공유 텃밭 및 DIY 활동을, 43%는 환경 분야 파트너십을 운영하고 있다. 즉 재사용·공유 농장·지역 순환경제를 일상 속에서 직접 실천하고 교육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티에르 리우의 공간 구성

프랑스 티에르 리우는 코워킹, 문화 활동, 교육 등 다양한 기능이 단일 공간 안에 통합된 구조이다. 공간의 용도를 하나로 고정하지 않고, 다양한 활동과 이용자 계층이 교차하도록 설계된다.

구체적으로 코워킹, 문화 시설, 마켓, 스튜디오, 교육·재교육 공간, 공용 주방, 사회 실험 공간 등이 복합적으로 구성된다. 시간대별로 상이한 프로그램과 이용자층이 연속적으로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하나의 시설이 하루 종일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는 구조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운영 인력: 퍼실리테이션이 핵심인 이유

프랑스식 티에르 리우에서 건물보다 중요한 것은 운영 인력의 전문성이다. 티에르 리우의 구조화, 전문화, 지속가능한 운영 모델의 성패는 공간 디자인보다는 운영의 전문성에 달려 있다는 인식아래 별도의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2023년 **Observatoire** 데이터에 따르면, 티에르 리우의 주요 운영 직무는 이용자 연결 코디네이터, 행정·재정 담당, 프로그램 기획자, 프로젝트 책임자, 현장 안내 대응 인력, 제작 장비 운영자, 매개자(**médiateur**) 등으로 구성된다.

운영 직무 구조가 중요한 이유는 명확하다. 코워킹 이용자와 창작자, 직업훈련 참여자와 지역 주민, 협회와 공공 파트너, 청년과 고령층이 한 공간에 모인다고 해서 자동으로 공동체가 형성되지는 않는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초보 이용자를 맞이하며, 갈등을 조정하고, 보조금 서류와 예산을 관리하는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프랑스식 티에르 리우에서 운영 인력은 부수적 요소가 아니라 공간 자체를 작동시키는 핵심 인프라이다.

경제 모델: 지속가능성의 실질적 조건

프랑스 티에르 리우의 경제 모델을 논할 때 가장 자주 등장하는 개념은 '혼합형(**modèle hybride**) 모델' 개념이다. 단일 수입원만으로는 장기 운영이 어렵다는 전제 아래, 공공재원과 자체 수익을 결합한 구조가 혼합형 모델 개념에 담겨있다.

2023년 **Observatoire**에 따르면, 총 3,500 여개에 달하는 티에르 리우의 총 매출은 8억 8,200만 유로에 달하며, 전체 예산의 49%는 공공 보조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이처럼 프랑스의 티에르 리우는 공공 보조금 의존도가 크며, "자체 수익 70% 이상"과 같은 모델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 그래서 실제 운영 모델은 공공 지원금, 공간 사용료, 교육·서비스 수익, 프로젝트 수탁, 제작·식음료·대관 수익 등이 혼합된 형태일 수밖에 없다.

도구로서의 티에르 리우: 투자 가치 정리

중앙정부 공식 정책에 부응하는 안전한 투자이다. 티에르 리우 모델은 지자체만의 독자적 실험이 아니다. 현재 국가 차원의 전담 기구인 '**France Tiers-Lieux**'가 설립되어 있으며, 국토균형발전청(**ANCT**)을 통해 상당한 예산이 전국 곳곳에 투입되고 있다. 지자체가 이 흐름에 동참하는 것은 곧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에 부응하는 것이다.

복지 예산으로 사회적 결속(**Cohésion sociale**)을 강화한다. 국토 단절과 양극화 해소, 지방 인구 소멸 방지는 현 정부의 핵심 과제다. 예를 들어 티에르 리우는 디지털 취약 계층인 빈곤층, 노년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행정 업무 처리 방법과 같은 디지털 활용 교육을 제공하면서 비용적인 면에서 단일 복지 시설 신축보다 더 효율적으로 작동한다. 이런 방식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서로를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독려하면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 결속력 강화에 이바지한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환경 실천 교육의 생활화가 가능하다. 기후 위기 대응은 지자체가 해야하는 의무이지만, 추상적인 캠페인만으로는 실제적인 변화를 끌어내기 어렵다. 티에르 리우 내에 있는 수리 공방(**Repair Café**), 공유 텃밭, 업사이클링 작업장에서 시민들은 자원 순환과 탄소 중립을 일상 속에서 직접 실천하고 학습할 수 있다. 지자체는 이를 지원함으로써 생활 밀착형 친환경 성과 지표(**KPI**)를 구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키우고 일자리를 창출한다. 티에르 리우는 청년 창업가, 원격 근무자, 프리랜서가 대도시로 이탈하지 않고 지역에 정착하여 활동할 수 있는 업무 인프라(코워킹 스페이스, 팜랩)를 제공한다. 직업 전환을 준비하는 이들의 재교육이 이루어지고 지역 소상공인과의 네트워크가 형성되며, 투입 예산이 단순 소모성 지출이 아닌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방어를 위한 생산적 투자로 이어진다.

문화 접근성을 제고하여 지역 불균형을 완화한다. 소도시와 농촌 지역에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간 문화 격차를 줄이고, 지역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또 하나의 복지 기능을 수행한다.

결론적으로, 이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단순한 공간 리모델링 비용이 아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짚어낸 복지·환경·경제라는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시민 주도 방식으로 해결하는, 비용 효율이 높고 안전한 필수 인프라 구축 비용으로 평가해야 한다.

결론: 왜 지금도 유효한가

프랑스는 티에르 리우를 국가가 직접 통제하는 관공서형 모델로만 운영하지도 않고, 순수 민간형 창업 공간으로만 제한하지도 않는다. 그보다는 공공이 구조를 설계하고, 현장이 운영 방식을 결정하며, 지역 파트너가 기능을 채워가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이런 점에서 티에르 리우는 정책의 하청도 아니고, 취향 기반의 커뮤니티도 아니다. 즉 프랑스식 티에르 리우는 지역사회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간 인프라에 가깝다.

결론적으로 프랑스의 티에르 리우는 단순한 공간 조성 사업이 아니라, 지역 사회가 직면한 복지·환경·경제 문제를 시민 주도로 해결해 나가는 '지속가능한 지역 인프라'다. 이 모델이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현안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질적인 이해관계자(공공, 기업, 시민)를 엮어내며, 보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혼합형 경제 모델을 설계하는 고도의 기획력과 소프트웨어(운영) 중심의 접근이 필수적이다. 향후 지자체 공간 재생 사업의 성패는 이 복합적인 생태계를 얼마나 정교하게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다.